



헌혈하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어 수혈용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현재 전국 16개 혈액원의 전체 적혈

구 농축액 적정 재고량을 7일분(3만3천242유니트)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재고량은 2일분(만2천696유니트)에 불과하다. 또 전체 혈소판 농축액의 적정 재고량은 3일분(만303유니트)이 필요하지만 재고량은 4천412유니트로 1일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수혈용 혈액이 부족한 것은 최근 수혈 부작용 추적조사결과 병원에서 수혈받은 환자 9명이 간염에 걸린 사실이 발표된 이후 혈액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헌혈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혈액원의 경우 의료기관 요구량의 절반도 공급하지 못하는 등 혈액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중요한 장기이식수술을 중단해야 할 형편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헌혈실태는 어떠한가? 적십자 혈액원 차량이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역 입구나 버스터미널, 대학가, 공공기관, 대기업 사무앞에서 헌혈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가는 사람가운데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혈액원 관계자의 권유로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400여회 헌혈로 훈장받은 공무원

40대의 우체국 집배원이 고교시절부터 지금까지 26년 동안 100회에 걸쳐 헌혈을 해 혈액원 측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고, 18살 고등학생이 31차례나 헌혈해 헌혈 유공 은장을 받아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또 3년간 56차례나 헌혈에 동참한 현역 여군 중위, 419차례 헌혈로 훈장을 받은 50대 공무원, 25년간 165회 헌혈한 50대 초등학교 교사, 모두들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사랑의 헌혈운동에 앞장선 우리의 이웃들이다.

이밖에 장애인이라고 해서 늘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며 헌혈에 기꺼이 참여한 장애인

혈액수급 비상



이광호_ KBS 해설위원

학생들, 백혈병 어린이를 살리기 위한 헌혈 릴레이 행사,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있기에 각종 질병과 사고, 재해 등으로 병상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다.

10대와 20대가 전체 헌혈의 85% 차지

우리나라의 헌혈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은 군인,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 등의 순이며 특히 여성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여성들의 참여가 낮은 것은 남자에 비해 헌혈에 소극적이고 다이어트 바람으로 철분 등이 기준치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헌혈자가 10대와 20대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체 헌혈자 가운데 20대가 53%, 10대가 32%를 각각 차지해 10대와 20대를 합치면 전체의 85%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10대와 20대 비중이 42%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우리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헌혈자수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반해 일본은 중·장년층 헌혈도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이처럼 우리의 헌혈이 10대와 20대에 편중돼 있는 것은 군부대나 학교 등의 단체 헌혈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군부대 헌혈 비중은 전체 헌혈자의 23~29%, 학교 헌혈은 17~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젊은층은 헌혈이 건강에 나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에 중·장년층에서는 아직도 헌혈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면서 1년에 5차례 이상 정기 헌혈을 하는 사람도 모두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조언한다.

1901년 오스트리아서 본격적 수혈 시작

수혈은 1628년경 이탈리아 의사 조반니 콜레

가 처음 시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혈액형에 대한 지식이 없어 당연히 부적합 반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 결과 17세기 후반에는 유럽에서 수혈이 금지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수혈에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은 1901년 오스트리아의 칼 란트슈타이너가 ABO식 혈액형을 발견하면서부터였다. 그 이후 혈액의 항응고제 개발 등으로 인해 수혈은 급속도로 보급되었고 오늘날 수혈은 수술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다.

지난해 5월부터 수혈 감염사고가 잇따르고 혈액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헌혈자가 줄고 있지만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잘못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

사랑의 헌혈이 바로 애국

적십자사측은 혈액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혈액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혈액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대체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헌혈참여가 중요하다. 피가 모자라면 외국에서 수입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나 의약품 제조용이 아닌 수혈용 피는 보존기간과 위생관리상 문제로 수입이 불가능하다. 매혈도 수입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헌혈은 수혈을 위한 피의 유일한 공급원이다. 애국은 거창한 일을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성어린 사랑의 헌혈이야말로 바로 애국이다. 이제 국민 모두가 남의 일이 아님을 인식하고 헌혈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